

아이돌 그룹의 가요 리메이크 곡 연구 - ‘환생’을 중심으로 -

박종율,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 jyp_0610@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Pop Music remake song by Idol group research

Jongyul Park,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리메이크란 어떤 창작물을 그것과 같은 장르, 혹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바꿔 만드는 것을 말한다. 노래하며 춤을 추고, 인원도 일반적으로 다수인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 원곡의 음악적 특징과 스타일은 그룹의 구성과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 등에 의해 재해석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곡과 리메이크 곡 사이의 다양한 편곡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환생’을 중심으로 윤종신의 원곡과 레드벨벳 버전의 리메이크곡 분석을 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시대별 상황, 현재 K-pop의 중심에 있는 아이돌 그룹의 리메이크의 형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가요를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 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친숙한 가수가 기존 가요를 리메이크 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당시의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를 넘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1. 서론

리메이크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며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1].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2].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제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편곡적 시도가 가능해지고, 또한 가수 역시 시대에 따라 그 형태 및 음악적 표현방식, 구성 등이 달라졌다.

본 논문에서는 레드벨벳의 ‘환생’의 리메이크 분석을 통해 원곡(윤종신 ‘환생’)과의 악기구성, 코러스, 보컬, 장르의 차이점과 원곡과의 공통점, 음악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2.1. 환생

<환생>은 그룹 ‘015B’에서 객원보컬로 활동하며, 솔로활동도 병행하고 있던 윤종신의 1996년 5집 앨범 ‘愚’의 타이틀곡이다. 윤종신의 5집 앨범 ‘愚’(우)는 윤종신의 디스코그래피

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앨범이다. ‘015B’의 객원보컬로 커리어를 시작한 윤종신이 ‘015B’의 정석원의 영향력으로 프로듀싱, 작곡, 작사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4집 타이틀곡 ‘부디’를 스스로 작사/작곡/프로듀싱하였고, 이후 앨범인 이 5집에서는 ‘015B’의 음악에서 벗어나 본인의 음악세계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물론 윤종신 스스로가 전문적으로 편곡을 배우지 않은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작업에 편곡을 담당해주는 서포터가 있으며, 거의 모든 곡이 이 서포터들과의 공동작곡이다. 그리고 이 5집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유희열이고, ‘환생’ 역시도 유희열과 공동작곡이다. 약 97만여 장의 판매고를 올린 이 앨범은 당시 쟁쟁한 가수들의 컴백으로 이른바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었던 96년 상반기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은, 윤종신의 전반기 음악의 역작이다. 총 9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5집은 두 개의 사이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반 5곡을 ‘Sweet Days’, 후반 4곡을 ‘Hopeless Days’로 구분했다. ‘바보같은 남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컨셉으로 전반 5곡까지는 연인과의 만남과 행복한 스토리를 그리다가, 후반 4곡에서는 헤어짐 이후 슬픔,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의 결혼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로 이어진다. 수록곡 모두가 각각의 스토리 구조에 걸맞은 훌륭한 음악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아침’, ‘일년’, ‘오늘’로 이어지는 후반부 3곡

은 지금도 윤종신 음악의 대표적인 감성인 “처절함”과 “궁상”이 잘 녹아있다.

타이틀곡인 ‘환생’은 3집의 ‘오래전 그날’ 과 함께 전반기 윤종신의 대표곡이다. 밝고 경쾌한 느낌의 두왓스타일의 리듬 앤블루스로, 남자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 기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2.2 곡 분석 - 원곡버전

아 라 아-아 아 라 아-아 아 -- 라 아-아 아 라 아-아

다 시-태어난 것- 같 아 요- 내모든
우 신-아침일 해- 일 여 나- 그대
전 칠-안의레 편- 여 자 들- 이제는

[그림 1] 윤종신 ‘환생’ 1 ~ 8마디

위 [그림 1]에서 보이듯 전주에 코러스주자의 전주 멜로디 라인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 코러스는 조규찬이 불렀다. Verse1 파트는 전체적으로 9마디를 두 번 반복하고 8마디의 Verse2 파트가 따라오는 a - a - b 형식의 구성이다.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밝은 두왓사운드이며, 플랜저 이펙트를 사용한 기타사운드와 건반, 스트링사운드는 고풍스러운 느낌도 전달한다.

할 - 때도안 된 사 - 위플하 며 그 멜로될 따 라 해 요
관 - 심도없 던 꽃 - 가게에 서 말 길이엄 - 귀 지 요

눈 - 힘들었 던 나 - 의아침 이 이렇게즐거울 수 있- 나 요
주 - 미니될 어 환 - 다발샷 조 오눈은아무날 도 아- 닌 테

[그림 2] 윤종신 ‘환생’ 17 ~ 24마디

[그림 2]에서 Verse2 파트인 18번째 마디와 22번째 마디에서 A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인 E7의 대리코드로서 Fdim7을 사용했다. 이는 앞선 F# - F - E 로 반음씩 하행하는 Descending Passing Diminish Chord의 사용이다.

Chorus는 Verse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별히 강조되는 고음파트나 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적인 ‘오 놀라워라’ 부분의 멜로디는 당시 윤종신의 미성과 어우러져 매력적이며,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가사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남자가 곡의 제목처럼 ‘다시 태어난 느낌’을 전해주는 내용이다. 어머니가 놀랄 정도로 새

사람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잘 모르는 음악의 멜로디를 따라하며 샤워하고, 전철안의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연인을 만날 생각에 웃고있는, 전형적인 연애초기의 행태를 묘사하고 있다. 딱딱한 문체가 아닌 ‘~요’ 로 끝나는 부드러운 문장으로 편곡과 잘 어우러져 행복한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있다.

2.3. 레드벨벳 - 리메이크버전

‘레드벨벳’은 2014년 8월 데뷔한 5인조 걸그룹이다. 같은 소속사 SM의 선배 그룹인 ‘소녀시대’와 ‘f(x)’의 아이덴티티를 융화한 컨셉을 추구하고 있으며, 음악적 방향 역시도 소속사 선배 걸그룹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룹의 기획의도가 ‘레드(강렬하고 매혹적)’와 ‘벨벳(클래식하고 부드러움)’의 두 콘셉트로 나뉘어 각 앨범 발매 시에 해당 콘셉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 넓은 음악스타일을 보여준다.

‘환생’은 2017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와, 윤종신이 대표로 있는 MYSTIC엔터테인먼트의 콜라보레이션 음악에는 ‘눈덩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곡으로 만들어졌다. 발랄한 미디엄템포 곡으로 재탄생했으며, 걸그룹이 부른 만큼 화자의 성별도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고 그에따라 가사도 조금씩 개사, 랩도 추가했다.

2.3.1 Intro

원곡은 8분의12박인 두왓 스타일의 리듬앤블루스 장르였지만, 리메이크곡은 4분의4박 미디엄템포 곡으로 바뀌었다. 원곡의 Intro는 조규찬의 인상적인 코러스라인으로 시작되지만, 리메이크곡에서의 Intro에서는 더 밝고 빠른 템포의 곡으로 바뀐 만큼 코러스 라인도 멜로디를 다르게 구성했다.

2.3.2 Verse

Intro에 이어 바로 따라나오는 Verse는 드럼, 퍼커션, 베이스와 함께 플루트가 메인으로 나오며 보컬과 함께하는데, 이 플루트는 이후 곡 전체를 함께 이끌어간다. a가 끝나면 Intro 마지막부분의 코러스라인 프레이즈가 따라나오는데, 이는 두왓스타일인 원곡의 형태를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a의 반복 이후 b가 나올때부터는 코러스가 함께하며 좀더 풍성한 이미지를 준다. 다만 전체적인 악기 구성은 기타와 건반이 함께 있는 원곡에 비해 리메이크곡이 더 단순한 구성이다.

약간의 가사 수정도 있다. 원곡의 ‘어머니’를 ‘엄마’로, ‘예쁜 여자들’을 ‘멋진 오빠들’로 바꾸었는데, 이는 노래 속 화자가 남성에서 젊은여성(콘셉트상 여학생)으로 바뀌며 연령에 맞게 좀 더 친근한 단어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2.3.3. Chorus

원곡의 Chorus는 풍성한 구성의 Verse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였으나, 리메이크곡은 전체적으로 좀 더 단순한 악기구성이었기 때문에 Chorus구간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리메이크곡에서는 Chorus구간으로 넘어갈 때 비트사운드를 추가하면서, 걸그룹임을 활용해 핵심 멜로디라인을 여러 목소리가 함께 해 변화를 주었다.



[그림 3] 레드벨벳 ‘환생’ 43 ~ 50마디

또한 2절의 Chorus구간 8마디는 랩으로 대체했는데, 이는 원곡에서 2절 Chorus가 한번 더 반복되는 것을 참고해 랩 구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랩의 내용은 원 가사에 비해 좀 더 직설적으로 새로운 사랑에 빠져 달라진 내 삶을 이야기한다.

2.3.4 Outro

Outro는 두 곡 다 큰 특징 없이 마무리한다. 원곡의 경우는 Chorus구간이 끝나며 간단한 코러스라인이 나오며 곡을 마무리짓고, 리메이크곡은 Verse가 끝날 때 쓰는 Intro의 마지막부분 프레이즈를 다시한번 차용하며 곡을 끝낸다.

3. 결론

리메이크는 곡 자체를 단순히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편곡을 통해 창조적인 음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생은 당시 떠오르던 뮤지션인 윤종신의 기념비적인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치열했던 당시 음반시장에서 살아남은 훌륭한 곡이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아티스트와 대중의 기억속에 남아 아직도 여기저기서 이 곡이 다양한 형태

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곡의 주인인 윤종신 또한 지금까지 사랑받는 뮤지션으로서 남아있으며,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가수로 사랑받고 있다. 당시의 감성, 문화와 스타일이 지금과는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 관통하는 핵심은 동일하며 여전히 그 핵심을 잘 녹여담은 노래와 뮤지션은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대중음악이 언제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를 넘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리메이크 영화 <만추>의 비교분석 연구." 이인혜(Lee In Hye). 씨네포럼 0.19 (2014): 75-113.
- [2] <WHY> 리메이크에도 예외가 있다. 2007.08
- [3] "These Are the Best K-Pop Groups You Should Know About". Bruner, Raisa. <<TIME>> 2018.2